

姜·李 단일화에 쏠린 눈... '찾잔속 태풍'이나 '역전 드라마'냐

〈강기정〉 〈이용섭〉

민주 5·4 전당대회 대표 경선 최대 변수

'김한길 대세론' 꺾을 시너지 효과 주목 단일후보 경쟁도 팽팽...경선 룰에 좌우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당권 주자인 강기정(북구 갑), 이용섭(광산 을) 후보의 단일화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은 과연 단일화 카드로 당권을 잡을 수 있느냐와 누구로 단일화가 되느냐다.

민주당 5·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후보단일화를 조망해 본다.

◇'찾잔속 태풍에 그칠 것' = 강기정, 이용섭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에 김한길 후보 진영에서는 '찾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김한길 후보의 '대세론'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남 표심의 결집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일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이미 김한길 후보 진영에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고한 정치적 명분보다는 다시 한 번 당권을 쥐겠다는 범주류의 답답이라는 정치공학자적 성격도 강해 후보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단일화 이후에도 이면 합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정치적 성장 과정이 다른 두 후보 진영의 화학적 결합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톨과 시기 등을 놓고 두 후보 진영이 갈등을 겪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극적인 역전 드라마 쓸 것' = 강·이 후보 측에서는 후보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김한길 후보의 대세론을 뒤엎으며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혁신을 모토로 하는 후보단일화는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면서 범주류의 결속은 물론 중도 진영의 지지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가 후보단일화 조건으로 강력한 민주당 혁신책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김한길 후보에 비해 강·이 후보가 중량감은 떨어지지만 혁신성과 신선도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단일화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단일화로 일 대 일 구도가 형성된다면 단일 후보가 김 후보를 바짝 뒤쫓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민주당의 혁신을 원하는 당심이 폭발, 막판 극적인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단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크게 희생하고 함께 뛰는 감동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감동과 혁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후보단일화의 동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일 후보 누가 되나 = 일단 팽팽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지난 컷-오프에서도 두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당내 기반과 정치적 인지도는 주류 진영의 핵심으로 활동하며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강 후보가 조금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적 돌파



총청 표심 속 세 후보 민주당 김한길, 이용섭, 강기정 당대표 후보들이 22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통합 총부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의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서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명길 효과'에 웃는 김한길

지원 연설회 사진 서터 세레 강·이 후보도 내조 공들이기

민주당 통합 대표 경선에서 '대세론'인 김한길 후보가 부인인 텔런트 최명길씨의 유명세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21일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최씨의 지원사격이 빛을 발했다.

합동연설회가 열린 화순 하니옴문화스포츠센터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셀렘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1000여명이 넘는 당원과 대의원들이 온집 한 만큼 '최명길 효과'는 뛰어났다.

김 후보 자신도 한때 베스트셀러 작가 겸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이름을 떨쳐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는데,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여전히 활동 중인 최씨의 인기가 더해져 '김-길 커플 효과'를 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최씨가 연설회장에 모습을 드러내 대의원들이 모여들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연방 사진을 찍어냈으며, 최씨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도 연출됐다.

'김한길 도우미'를 자처하는 최씨

의 내조는 정치권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 후보가 치르는 선거 유세 현장에 동행하는 것은 기본이며, 작년 6·9 전대 때는 첫 경선자인 울산에 김 후보와 미리 내려가 짬짬 등을 돌며 표밭을 다져 예상을 깨고 압승을 거두는 데 일조했다.

올해는 드라마 출연 탓에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에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울산과 광주 연설회에 동행해 김 후보에게 힘을 보탤었다.

지난해 6·9 전대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남에서 이기니 뒤에 김두관 경남지사가 있다 하고, 충북·강원에서 이기니 뒤에 손학규 상임고문이 있다 하는데 김한길 뒤에는 최명길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다른 후보 부인들은 더 열심히 대의원을 만나 바디표를 다지며 최씨에 쏠린 대의원의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기정 후보와 이용섭 후보의 배우자는 비록 인지도에서는 뒤지지만 최씨와 달리 모든 연설회 일정을 같이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내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정부, 한옥 보급·확산 위한 법률안 제정 추진 전남도 한옥 육성 정책 탄력

건축자산 진흥구역 추진

정부가 한옥 보급과 확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전남도의 한옥 육성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

리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옥 집단 마을인 행복마을 조성 때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된다. 행복마을은 한 마을의 집 12채 이상을 한옥으로 개조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민박이나 특산물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한옥지원조

례를 제정, 한옥발전 기금을 조성해 행복마을 내 공공기반시설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지원 등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한옥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 한옥 밀집지역과 행복 마을을 구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행복마을 등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근대 개항기 이후 지어진 비문화재급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소유자가 시·도지사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리·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 법이 제정되면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한 국가한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행복마을 이외에도 전남에 10여채 이상 모여 있는 한옥은 1만8900여채에 달한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100개소의 행복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내 및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 귀뚜라미

19년 연속 (1999~2013) KS 인증제품 국가브랜드 경영대상 1999~2007년 연속 가정용보일러 AS 부문 1위
가정용보일러 브랜드대 1위 인민부원 수상 6년 연속 1위 수상 품질 경영 우수기업 2008년 서비스품질 1위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장의 해

4번 태워 잡고! 거꾸로 태워 잡고!

대한민국 가스비, 귀뚜라미가 잡는다!

대한민국 보일러 기술, 귀뚜라미가 만듭니다

한발 앞선 연구와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대한민국 보일러 기술을 선도해온 귀뚜라미 - 한국형 온돌난방에 맞춘 저탄상 보일러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획기적인 연료비 절감은 물론 성능에서도, 안전성에서도 단연 앞서갑니다

4번 타는 보일러 거꾸로 콘덴싱 보일러

1588-9000

빛의 만평

- 김종두



땅을 많이 파서 걱정된다